

특집 | 트랜스휴머니즘 / 포스트휴먼과 일본사회

포스트휴먼은 어떻게 오는가: 알파고와 사이배슬론 이벤트 분석 | 전치형

투고일자: 2017. 6. 19 | 심사완료일자: 2017. 7. 3 | 게재확정일자: 2017. 8. 8

이 글은 포스트휴먼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대신 사람들이 포스트휴먼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우리 앞에 또는 한 사회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검토한다. 2016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이세돌-알파고 바둑 대국과 2016년 10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사이배슬론 대회 현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일회성 이벤트로 처음 등장한 포스트휴먼이 그 현장의 국소적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사회 속으로 진입하여 자리를 잡으려 할 때 벌어질 일들을 가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17세기 영국 왕립학회에서 실험적 사실이 등장하는 과정을 분석한 스티븐 새핀과 사이먼 새퍼의 과학사 연구 관점을 활용한다. 포스트휴먼을 구성하는 '물질적 기술', 포스트휴먼 등장의 의미를 숙고하는 '언어적 기술', 그렇게 등장한 포스트휴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와 제도를 구성하는 '사회적 기술'은 어떤 자격의 포스트휴먼을 등장시킬 것인지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우리의 관심을 포스트휴먼의 기술적 역량(알파고의 바둑 실력, 사이배슬론 선수의 운동 능력)에 대한 전망에서 포스트휴먼의 사회적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알파고, 사이배슬론, 포스트휴먼, 사회적 기술

섬뜩한 계곡: 일본 안드로이드(로봇)의 감성지능과 미적 매개 | 이강원

투고일자: 2017. 5. 20 | 심사완료일자: 2017. 5. 29 | 게재확정일자: 2017. 8. 8

이 연구는 일본 안드로이드의 감각과 감성의 개발 과정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인간과 인공지능 간 상호 감응에 필요한 감성지능의 존재방식을 탐구한다. 특히 안드로이드 개발의 지향점이 되어왔던 '섬뜩한 계곡'이란 그래프가 로봇공학, 인공지능, 인지과학의 융합연구에 주요한 문제로 자리잡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상호 감응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느낌의 미학적 국면을 조망한다. 그러므로써 섬뜩한 계곡은 미적 매개가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의 출발선상에 있으면서 느낌, 감응, 체화, 감성을 통해서 기존의 과학적 기준에 종속될 수 없는 독특한 미적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게 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인지과학, 안드로이드, 섬뜩한 계곡, 미적 매개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향상의 생명정치학 | 신상규

투고일자: 2017. 6. 12 | 심사완료일자: 2017. 6. 26 | 게재확정일자: 2017. 8. 8

인간향상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인간향상 논쟁의 중심 전선은 트랜스휴머니스트와 생명보수주의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논쟁의 초점은 인간향상을 금지할 어떤 원칙적 이유가 있는지의 문제다. 이 글은 논쟁의 초점을 바꾸고 생명정치적 요소들을 더욱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향상 논쟁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향상기술의 추구나 금지보다 사회적 정의와 인간적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향상기술의 발전과 적용을 어떻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인간향상 논쟁이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스트와 기술진보주의자 사이의 논쟁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사회적 정의나 불평등의 문제가 좀 더 적절히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기술진보주의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율성 개념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고 이에 입각하여 자율성과 사회적 공정성의 관계를 재평가한다.

주제어: 트랜스휴머니즘, 생명정치학, 자율성, 사회적 정의

‘신불(神佛) 애니미즘’과 트랜스휴머니즘: 가미(神)와 호토케(佛)의 유희 | 박규태

투고일자: 2017. 6. 15 | 심사완료일자: 2017. 6. 28 | 게재확정일자: 2017. 8. 8

이 글의 목적은 트랜스휴머니즘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특히 ‘종교적 트랜스휴머니즘’과 관련하여 트랜스휴머니즘과 종교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흔히 애니미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신도와 불교 및 각각의 가미(神)와 호토케(佛) 관념이 트랜스휴머니즘적인 일본 테크놀로지 문화의 중요한 밑그림이라는 점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트랜스휴머니즘과 종교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담론을 간략히 계보화한 후, 네오-애니미즘에서 테크노-애니미즘에 이르는 사유의 흐름을 일본의 사례에 적용시켜 그것을 ‘신불-애니미즘’이라 명명한다. 이어서 그러한 신불-애니미즘과 관련하여 가미와 호토케의 개념사를 살펴본 후 유희성, 트랜스-스피리추얼리티, 하이브리드, 모노노아와레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종교와 테크놀로지적 일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트랜스휴머니즘, 종교, 네오-애니미즘, 테크노-애니미즘, 신불-애니미즘, 가미, 호토케

일본 SF소설 속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의 현재 | 신하경

투고일자: 2017. 6. 26 | 심사완료일자: 2017. 7. 4 | 게재확정일자: 2017. 8. 8

현재 일본의 SF소설은 정보통신기술, 신경과학, 인지과학, 컴퓨터-신경 네트워킹, 유전공학 등 제반 과학의 발달을 소설 세계의 설정으로 도입하면서, 그러한 과학기술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재현한다. 그 결과로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지’란 무엇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감정’이란 무엇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을 구성하고 있다. ‘포스트휴먼’의 질문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며, 그에 대한 탐구의 과정은 과학기술의 개별적 속성에 따라 ‘기술적’인 특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이토 케이카루는 『학살기관』과 『하모니』를 통해 주로 정보통신기술과 뇌과학의 발달이 이야기하는 포스트휴먼적 문제들을 제기한다. 정보통신기술은 ‘예측 가능한 인간’이라는 인간관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인간 개개인의 독자적 개성은 부정되고, 예측 가능한 사고와 행동

이 추천되고 재생산된다. 결과적으로 ‘타자로부터의 간섭이 없는 자기 결정’을 의미하는 근대적 ‘자유’는 부정된다. 또한 뇌과학의 발달은 인간 행동의 고유 영역이라고 인식되어 인간의 존재 근거로 근대 이후 논의되어왔던 인간의 ‘의지’나 ‘의식’의 조작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며, 그것은 인간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하세 사토시의 『당신을 위한 이야기』는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라는 사이버네틱스적 상상력 속에서도 인간이 육체를 떠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리고 생로병사라는 한계를 지닌 인간의 ‘육체’에 비해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토비 히로타카는 ‘폐원의 천사’ 시리즈에서 인간 정신과 물질의 분리를 통해 사이버 공간으로 이주한다고 해도 인간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AI 폭력 문제 등에서 확연히 나타나듯이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될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제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SF는 그 연장선 위에서 인간(사회)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제어: 포스트휴먼, SF, 이토 케이카쿠, 토비 히로타카, 하세 사토시

일본 애니메이션의 과학적 상상력 고찰: 인간의 경계 확장을 둘러싼 ‘이야기’ | 김일림

투고일자: 2017. 6. 15 | 심사완료일자: 2017. 6. 28 | 게재확정일자: 2017. 8. 8

이 연구는 대중문화의 상상력이 압축된 장으로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주목하고, 과학적 활동으로서 이 장르가 수행해온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전개된 일본 애니메이션을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체계에서 인간의 경계가 확장되는 방식을 고찰했다. 이 글이 주목한 것은 인간의 개입에 의해 탄생한 세 종류의 인공체다. 즉 비유기체로 구성된 자동장치인 로봇, 인간과 기계를 결합한 사이보그, 유전자와 세포 융합 등으로 만들어지는 제3의 생명체가 그것이다. 아울러 논의의 출발점인 ‘인간’은 정의하지 않고 열린 존재로 규정하되, 기준이 되는 경계는 생물의 분류체계 및 심신이원론에 따랐다.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이 글은 (1) 인공체의 위상 변화, (2) 인간과 인공체의 관계 구축 방식, (3) 자연과 인간, 인공체의 관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이 과정에서 인공체가 인간을 대체하는 도구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상징으로 위상을 바꾸어온 경위가 드러난다. 근대의 예술 개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오리지널’과 ‘모방’의 개념이 인공체의 탄생과 정착, 위상 변화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속의 인공체는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자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는 상징물로서, 현대 과학이 당면한 쟁점을 보여주었다. 일련의 인공체는 당대의 과학적 상상력이 형상화된 결정체이며, 과학적 상상력을 주도하는 매개물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과학적 상상력은 인간중심주의적인 세계관으로는 더는 이 세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 중심의 신화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인간 중심의 이야기 문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 이 글은 과학적 활동의 양가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인간의 경계’를 확장해온 양상을 메타적으로 고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과학적 상상력, 인공체, 초인, 유비 관계, 이야기

연구논단

오이켄(R. Eucken)의 '신이상주의' 수용과 한일 '문화주의'의 전개 양상:

이쿠다 조코(生田長江)와 노자영(盧子泳)을 중심으로 | 최호영

투고일자: 2017. 4. 29 | 심사완료일자: 2017. 5. 23 | 게재확정일자: 2017. 8. 8

이 글은 오이켄의 '신이상주의'를 통해 한일 근대문학에서 '문화주의'가 전개되어간 양상을 살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쓰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1차대전 이후 종래의 사회진화론을 반성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에 등장한 문화주의를 비교하는 가운데 양자의 성격을 대체로 '개인'과 '민족'의 층위로 이분화시켜왔다. 이 글에서는 오이켄을 매개로 한 이쿠다 조코와 노자영의 '신이상주의' 수용 양상을 추적해봄으로써 양자의 접점과 함께 조선의 '문화주의'에 내재한 독특한 지점을 밝히고자 했다. 1920년대 조선에서 노자영은 이쿠다 조코를 통해 오이켄의 신이상주의를 접했다. 이쿠다 조코는 기존의 사회진화론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이켄의 신이상주의를 접했으며 세계와 인간, 객관과 주관의 조화시키는 정신생활을 통해 세계라는 보편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가 특히 동서사상을 종합적으로 섭취하는 인격 활동을 통해 정신생활을 영위하고자 했던 것은 이른바 '다이쇼 교양주의'의 이상과 일치한다. 이쿠다 조코를 경유하여 오이켄의 신이상주의를 수용한 노자영 또한 세계적 보편성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노자영은 여기서 나아가 세계적 보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전통'을 발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격 활동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쿠다 조코가 오이켄의 신이상주의를 수용하여 세계적 보편성을 표방하기 위한 '교양주의'를 지향하려 했다면, 노자영은 세계의 보편성을 향해 조선적 특수성을 발휘하기 위한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오이켄(R. Eucken), 신이상주의, 문화주의, 이쿠다 조코(生田長江), 다이쇼 교양주의, 노자영, 전통, 공동체

197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재일교포의 표상: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김범수

투고일자: 2017. 4. 30 | 심사완료일자: 2017. 5. 19 | 게재확정일자: 2017. 8. 8

이 글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 시기에 초점을 맞춰 재일교포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972년 10월 1일부터 1979년 10월 31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 시기 박정희 정권의 통치 이념으로 작동한 반공주의, 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의 프레임하에 재일교포가 한편으로는 “북한을 지지하는 간첩,” “조국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 “조국의 경제발전보다 돈의 생리를 따르는 배신자” 등 부정적 이미지의 “타자”(Others)로 표상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핏줄을 나눈 우리 국민”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표상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재일교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1975년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을 계기로 이들을 타자화하고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이들을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적극 포섭하고 회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주제어: 박정희, 재일교포, 반공주의, 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 포섭과 배제